

최근 방글라데시 의류산업의 노동환경 현황 및 시사점

1. 방글라데시 노동환경 현황

□ '라자 플라자' 건물 붕괴로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한 비판 확산

- 2013년 4월,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 인근에서 '라자 플라자' 의류 공장이 붕괴되면서 노동자 1,127명이 사망하고 2,500여명이 부상당하는 사건이 발생함.
 - 이번 참사는 불법 증축과 안전 불감증이 빚어낸 전형적인 후진국형 인재(人災)로서, 이를 계기로 열악한 노동환경 문제가 다시 대두되고 있음.
- 2012년 11월에는 다카 인근의 공장에서 화재로 112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면서 방글라데시의 열악한 근로환경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이 이어진바 있음.

□ 월 최저임금, 주요 의류수출국의 절반 수준

- 의류산업은 방글라데시 경제의 중심산업¹⁾으로 4백만 명이 동 산업에 종사하나 근로환경은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남. 많은 의류공장들이 불법적으로 증축되고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있으며, 노동자들은 심야근무, 질병과 저임금 등에 시달리고 있음.
 -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ILO)에 따르면, 방글라데시의 월 최저임금은 1985년 이후 단 3차례 인상되어 현재 39달러로 주요 섬유·의류 수출국인 캄보디아, 인도 등과 비교했을 때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 월 최저임금 비교: 캄보디아(80달러), 파키스탄(79달러), 베트남(78달러), 스리랑카(73달러), 인도(71달러)

1) 방글라데시는 풍부하고 저렴한 노동력(인구 1.6억 명)을 바탕으로 중국을 대체하는 투자처로 부상하고 있으며, 동국의 의류산업은 GDP의 10%에 이르고 연간 200억 달러를 수출(세계 2위)하는 주요산업임.

- '라자 플라자' 의류공장 붕괴이후 방글라데시에서는 노동환경 개선 및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으며, 정부의 강경진압으로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함.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동의하였으나, 인상폭에 대해 노사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추가 시위 및 파업 등의 발생 가능성이 있음.

2. 근로조건 개선 요구에 대한 대내·외 반응

□ 미국·EU, 노동환경 개선 촉구

- '라자 플라자' 의류공장 붕괴사건 이후 미국은 방글라데시에 부여했던 '일반특혜 관세제도'²⁾ 적용을 지난 6월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하였으며, EU도 실질적인 노동환경 개선조치가 없을 경우 동 제도를 철회하겠다고 밝힘.
 - 당초 미국은 방글라데시 의류 제품에 대해 관세혜택을 부여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방글라데시의 대미 의류·섬유 수출은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국제신인도 하락에 따른 구매자들의 수입선 전환 및 방글라데시에 대한 투자 위축 등의 가능성이 존재함.
 - 한편, 방글라데시는 의류 수출의 약 60%를 EU에 의존하고 있어, EU의 일반 특혜관세제도 적용³⁾ 철회 시 동국의 경제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됨.

□ 글로벌 기업들, 안전강화를 위한 협약 체결

- Zara, H&M 등 유럽의 글로벌 의류업체들은 공동으로 법적구속력을 갖는 '방글라데시 공장에 대한 화재 및 안전 합의안(Fire and Safety Accord)'을 마련하는 한편, 자사 제품 생산 공장에 대한 안전감사를 철저히 하고 감사결과를 공표하기로 함.
 - 동 합의안에서 정한 안전기준에 미흡한 공장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개선되지 않는 공장에 대해서는 거래를 중단한다는 방침임.
- Wal-Mart, Gap 등 북미 업체들의 경우 '방글라데시 노동자 안전을 위한 연합체 (Alliance for Bangladesh Worker Safety)'를 구성하고 근로환경 개선을 촉구하고 있음. 실제로 Wal-Mart는 2013년 10월 안전점검을 통해 불법 증축된 건물의 일부를 철거하고 일부 공장을 폐쇄하기도 함.

2) 일반특혜관세제도(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개발도상국의 수출확대 및 공업화 촉진을 위해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농수산물, 공산품의 제품·반제품에 대하여 무관세의 적용 또는 저율의 관세를 부여하는 혜택

3) EU는 방글라데시로부터 수입하는 의류를 포함한 모든 제품(무기 제외)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고 쿼터 제한을 하고 있지 않음.

□ 정부,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법 개정 추진

- 월 39달러 수준인 최저임금을 100달러로 인상하라는 요구시위가 지속되자, 정부는 2013년 11월 의류노동자의 최저임금을 인상하기로 결정함. 다만, 정부는 66달러, 의류업체는 54달러를 상한으로 제시하고 있어 최저임금 상승폭에 대한 추후 합의가 필요함.
- 또한, 정부는 고용보험 의무 가입, 자유로운 노조 설립 보장, 의료시설 설치 의무화(5,000명 이상 작업장), 화재교육 의무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한 노동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

<표> 2013년 의류산업 관련 주요 사건

		주요 사건
4월	24일	방글라데시 다카 부근 '라자 플라자' 의류공장 붕괴, 1,127명 사망
	26일	다카·치타공·가지푸르에서 의류 노동자들 시위
5월	1일	노동환경 개선 요구 대규모 시위
	12일	노동단체와 사업자단체, 노동환경개선 협약
	13일	노조설립 요건 완화를 위한 노동법 개정 협의
	14일	방글라데시 정부, 의류공장 안전점검 뒤 수백개의 사업장 폐쇄 유족들에게 700,000 타카(약 780만원) 지원 결정
6월	27일	미국, 방글라데시에 대한 일반특혜관세 잠정 중단
9월	22일	다카에서 노동자들 시위, 강경진압으로 50여명 부상
10월	8일	다카 외곽 의류공장 화재, 60명 사상자 발생
11월	4일	방글라데시 정부, 의류노동자 최저임금 인상안 결정
	12일	임금인상안에 항의하는 의류노동자 시위에 대한 정부의 진압으로 50여명 부상

3. 우리기업의 진출현황 및 시사점

□ 우리기업, 방글라데시 섬유·의류관련 투자 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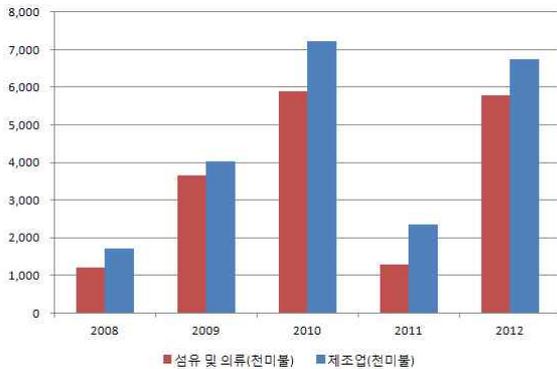
- 우리나라의 대 방글라데시 제조업 투자(2013년 9월 누계기준)는 185백만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이 중 섬유·의류부문에 대한 투자가 158백만 달러로 제조업 투자의 85.6%를 차지하고 있음.

- 2008년 이후 우리나라의 방글라데시 섬유·의류부문에 대한 투자는 증가세를 보이다가 2011년 최저임금 상승으로 투자가 일시 급감한 후 2012년에는 2010년

수준을 회복함. 한편, 전체 제조업 부문 투자 중 섬유·의류부문에 대한 투자 비율은 2011년을 제외하고 70%를 상회하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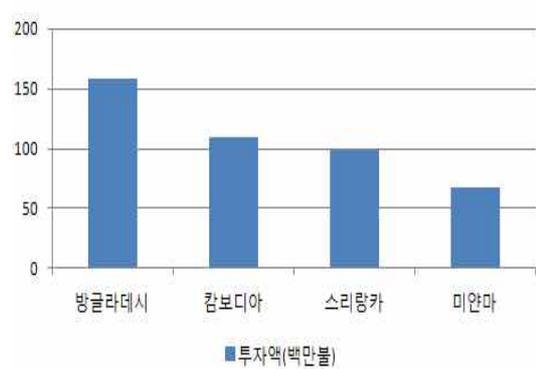
- 우리나라의 섬유·의류부문 관련 투자(2013년 9월 누계기준)를 국가별로 살펴보면 방글라데시 158백만 달러, 캄보디아 110백만 달러, 스리랑카 99백만 달러, 미얀마 69백만 달러로 4개국 중 방글라데시에 대한 우리나라 기업투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됨.

<그림 1> 우리나라의 대 방글라데시 투자 추이 (섬유·의류/제조업 부문)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그림 2> 우리나라의 국가별 투자 현황 (섬유·의류 부문, 투자누계)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 국내업체, 인건비 상승과 규제강화에 따른 적극대응 필요

- 방글라데시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인건비 지출 증가와 근로자 복지 확대 요구로 제조원가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이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들은 효율적인 공장 운영을 통한 생산성 제고, 규모의 경제 등을 통한 비용절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또한, 노동자들의 근로환경 개선 요구 시위로 조업중단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원활한 노사관계가 공장 운영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한편, 방글라데시 정부와 글로벌 의류업체는 수시 점검을 통해 작업장 안전 기준 준수, 근로환경 개선 등을 엄격하게 요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소화기 설치, 비상계단 확보 등 기본적인 안전시설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음.

조사역 서은주(☎ 02-3779-5705)
E-mail: seoeunchu@koreaexim.go.kr